

컨버전스 시대 승부처 '멀티기능' ① 프롤로그

차세대 부가 서비스 '멀티를 잡아라'

'멀티 서비스 · 멀티 디바이스' 대세 ... '멀티 유저' 요구

차세대 서비스로 불리는 와이브로(WiBro)와 HSDPA가 잇따라 상용화에 들어갔다. 또 방송 · 통신 결합 서비스의 대표작으로 불리는 DMB(디지털 멀티미디어 브로드캐스팅)가 위성/지상파 공히 가입자 접점을 늘려가고 있는 추세. 여기에 자동차와 통신이 텔레매틱스 분야에서 결합하는 등 그야말로 컨버전스(융복합화)가 대세를 이루고 있다.

유무선 통신사업자들이 지향하는 '트리플플레이서비스(TPS)', 나아가 '쿼드러플서비스(QPS)' 역시 이런 '대세'를 반영한다. TPS는 인터넷+음성전화(인터넷전화 포함)+비디오 서비스가 결합된 형태이고, QPS는 TPS에 이동통신 서비스까지 결합된 형태. 그야말로 고전적인 영역을 넘나드는 '번들'이 시도되는 것이다.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IP-TV(IP미디어)'나 7월 본격 서비스가 예정된 'TV포털' 등은 각각 통신과 방송의 융합, 양방향성의 확대 등으로 주목받는 사례 중 하나.

이에 따른 서비스의 진화도 눈부시다. 최근 서비스들은 예전 음성통화를 보조하던 기본 기능에서 이제 '멀티 기능'으로 확장된다는 게 큰 특징이다. 새로운 데이터 서비스의 발굴 또는 음성과 데이터의 결합, 이종산업과의 복합화 등을 통해 제공되는 이러한 다양한 서비스들을 통해 사용자 편리도 그만큼 확대되는 셈이다.

서비스가 '멀티'로 무장하면서 동시에 단말기(디바이스) 또한 컨버전스화하는 추세다. 1세대 휴대폰에서 차세대 '멀티 기기'로 탈바꿈하고 있는 것.

휴대폰은 운영체제(OS)를 담아 PC화 하는 동시에 DMB를 담고, MP3P를 담았다. '멀티미디어 기기의 꽃'이라 불리며 등장한 PMP는 그 진화의 끝점을 아직 알지 못한다. MP3P가 동영상 재생하고, 내비게이션이 TV를 보여준다. 이 역시 영역을 넘나드는 치열한 생존전략의 일환이다.

바야흐로 세상은 '멀티 유저'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K**

〈편집자 주〉

